

〈부록 표 I-1〉 조사영역별 응답자 특성: 응답자 분포

	구분	건강 및 간병	은퇴준비 및 사망	소득흐름 및 재산손해
성별	남성	969(51.0)	969(51.0)	969(51.0)
	여성	931(49.0)	931(49.0)	931(49.0)
연령별	20대 이하	355(18.7)	355(18.7)	355(18.7)
	30대	344(18.1)	344(18.1)	344(18.1)
	40대	417(21.9)	417(21.9)	417(21.9)
	50대	452(23.8)	452(23.8)	452(23.8)
	60대	332(17.5)	332(17.5)	332(17.5)
거주지역	서울	364(19.2)	364(19.2)	364(19.2)
	부산/울산/경남	283(14.9)	283(14.9)	283(14.9)
	대구/경북	179(9.4)	179(9.4)	179(9.4)
	인천/경기	639(33.6)	648(34.1)	652(34.3)
	광주/전라	183(9.6)	167(8.8)	174(9.2)
	대전/세종/충청	188(9.9)	188(9.9)	188(9.9)
	강원/제주	64(3.4)	71(3.7)	60(3.2)
동거 가족수	1인	288(15.2)	287(15.1)	328(17.3)
	2인	400(21.1)	408(21.5)	415(21.8)
	3인	563(29.6)	540(28.4)	514(27.1)
	4인	553(29.1)	559(29.4)	519(27.3)
	5인 이상	96(5.1)	106(5.6)	124(6.5)

주: 괄호 안은 영역당 조사대상자 1,900명 대비 비율(%임)

〈부록 표 I-1〉 계속

구분		건강 및 간병	은퇴준비 및 사망	소득흐름 및 재산손해
혼인상태	미혼	709(37.3)	688(36.2)	730(38.4)
	기혼	1,101(57.9)	1,108(58.3)	1,039(54.7)
	별거 중	4(0.2)	4(0.2)	6(0.3)
	이혼	64(3.4)	74(3.9)	98(5.2)
	사별	14(0.7)	16(0.8)	14(0.7)
	무응답	8(0.4)	10(0.5)	13(0.7)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1,197(63.0)	1,177(61.9)	1,168(61.5)
	임시, 일용근로자	134(7.1)	144(7.6)	145(7.6)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53(2.8)	49(2.6)	34(1.8)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118(6.2)	100(5.3)	121(6.4)
	무급가족 종사자	14(0.7)	9(0.5)	14(0.7)
	기타 종사자	27(1.4)	26(1.4)	39(2.1)
	주부	140(7.4)	152(8.0)	147(7.7)
	기타	217(11.4)	243(12.8)	232(12.2)
교육 수준	중학교 이하	26(1.4)	26(1.4)	28(1.5)
	고등학교	335(17.6)	302(15.9)	317(16.7)
	대학교(4년제 미만)	312(16.4)	278(14.6)	299(15.7)
	대학교(4년제 이상)	1,027(54.1)	1,058(55.7)	1,017(53.5)
	대학원 석사	165(8.7)	195(10.3)	204(10.7)
	대학원 박사 이상	35(1.8)	41(2.2)	35(1.8)
월평균 개인 소득 (세후)	200만 원 미만	403(21.2)	402(21.2)	454(23.9)
	200~300만 원 미만	455(23.9)	498(26.2)	464(24.4)
	300~400만 원 미만	399(21.0)	381(20.1)	365(19.2)
	400~500만 원 미만	269(14.2)	243(12.8)	257(13.5)
	500~600만 원 미만	160(8.4)	146(7.7)	139(7.3)
	600~700만 원 미만	80(4.2)	93(4.9)	89(4.7)
	700~800만 원 미만	55(2.9)	65(3.4)	58(3.1)
	800만 원 이상	79(4.2)	72(3.8)	74(3.9)

주: 괄호 안은 영역당 조사대상자 1,900명 대비 비율(%임

1. 위험태도

가. 위험태도 측정

위험태도를 측정함에 있어서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개인에게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할 의향이 있는지 질문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질문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대규모 패널조사에는 유럽의 GPS(The Global Preferences Survey), 독일 SOEP(German Socio-Economic Panel) 등이 있다.

76개국을 대표하는 8만여 명의 표본의 위험선호, 시간선호, 상호호혜(Reciprocity), 이타성, 신뢰 등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는 GPS의 경우, 위험선호도는 정성 질문과 위험선호와 관련된 여러 개의 정량적 질문을 통해 도출한다.¹⁹⁾ 먼저 “당신은 대체로 얼마나 위험을 감수 또는 꺼립니까?”라는 정성 질문에 1부터 10 사이의 숫자로 정도를 선택하도록 한다. 정량적 선택은 5개의 양자 선택으로 구성되는데, 응답자에게 같은 확률로 x 또는 0에 당첨될 수 있는 복권과 확실한 금액 y 중 하나를 선택하는 질문을 하고, 답변에 따라 금액을 달리하여 응답자의 확실성 증가를 찾아가는 방식으로 사용한다.

SOEP는 독일경제연구소(DIW; The Deutsches Institut für Wirtschaftsforschung)가 1984년부터 수행하고 있는 독일 거주 성인의 패널 설문조사이다.²⁰⁾ 약 15,000가구를 대상으로 한 종단 설문(Longitudinal survey)으로 서독의 경우는 1984년부터 2021년까지, 동독의 경우는 1990년부터 2021년까지의 가구를 포함한다. 설문조사 항목은 인구, 근로 및 고용, 소득, 세금, 사회보장, 가족 및 사회관계, 건강, 주거, 편의시설, 교육, 태도, 가치, 성격, 시간 사용, 이민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태도, 가치, 성격 관련 항목에서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위험감수도를 10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위험감수

19) 브리크 행동 및 불평등 연구소 홈페이지

20) Research Data Center SOEP 홈페이지

도와 함께 운전, 투자, 여가활동 및 스포츠, 직업 전망, 건강, 외국인에 대한 신뢰 등 여섯 가지 세부 분야에서의 위험감수도를 묻는다.

〈부록 표 II-1〉 SOEP 위험태도 관련 질문

구분	질문
일반	당신은 대체로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위험을 피하려고 하는 사람입니까?
세부 영역	다음 영역에 대해서 위험에 대한 당신의 태도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운전할 때
	• 금융투자
	• 여가 활동 및 스포츠
	• 직업 전망
	• 건강
	• 외국인에 대한 신뢰

자료: DIW(2022)

미국 HRS(Health and Retirement Study)는 University of Michigan이 국립노화연구소(The national institute on aging)와 사회보장국(The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의 지원을 받아 조사하는 종단 패널조사로 미국 내 2만여 명의 5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다.²¹⁾ 인구학적 정보, 건강상태, 의료서비스 이용, 의료서비스 비용, 신체기능장애, 인지능력, 기대, 가족구조, 주거, 자산 및 부채, 소득, 직업, 은퇴 및 연금, 사회보장, 장애, 보험, 결혼상태, 인터넷 사용, 심리 및 사회적 관계 등 광범위한 내용을 조사하는데, 2012년에 가상의 투자 결정에 대한 질문을 통해 전망이론을 확인하는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02년에는 위험회피와 관련된 설문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Charness et al.(2020) 네덜란드 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실험실에서의 위험태도 측정치가 실험실에서의 재무적 위험행동과 실험실 밖에서의 위험 관련 행동에 대해 어느 정도의 예측력을 가지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들은 위험 태도를 5가지 지표로 측정하였는데, 응답자가 판단하여 답변하는 자기보고식 측정, 투자 선택, 순차 복권 선택, 짝으로 구성된 복권 선택, 짝으로 구성된 복수 복권 선택 등으로 측정하였다.

21) Health and Retirement Study 홈페이지

〈부록 표 II-2〉 위험태도 측정사례

구분	측정방법	선행연구
자가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험을 감수할 의향이 얼마나 되는지를 10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 일반적인 위험, 특정 상황에서의 위험을 묻기도 함 	Dohmen et al.(2011)
투자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험 참여자에게 일정 금액을 제공하고, 참여자는 50%의 확률로 주어진 금액의 2.5배를 상금으로 주는 복권을 얼마만큼 살 것인지 선택 복권에 투자하지 않은 금액은 참여자가 가짐 	Gneezy and Potters(1997), Charness and Gneezy(2010)
순차 복권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50% 확률로 다른 금액을 지불하는 복권들 중에 선택 e.g. 7유로를 언제나 제공하는 복권부터 50%의 확률로 0.5유로, 50%의 확률로 17.5유로를 제공하는 복권까지 6가지 복권들을 보여주고 하나를 선택하도록 함 	Eckel and Grossman(2008)
짝으로 구성된 복권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A복권과 B복권을 보여주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함 실험 참여자는 10개의 순차적인 선택을 하게 됨 	Holt and Laury(2002)
짝으로 구성된 복수 복권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14개의 순차적인 선택을 하게 하는 2개의 목록으로 구성 첫 번째 목록은 30%의 확률로 8유로, 70%의 확률로 2유로를 주는 A복권과 90%확률로 1유로, 10%의 확률로 13.6유로부터 340유로까지 늘어나는 14개의 복권 두 번째 목록은 90%의 확률로 8유로, 10%의 확률로 6유로를 주는 A복권과 30%확률로 1유로, 70%의 확률로 10.8유로부터 26유로까지 늘어나는 14개의 복권 	Tanaka et al.(2010)

자료: Charness et al.(2020) 내용을 표로 정리함

먼저 100유로를 3가지 프로젝트에 배분하는 자산배분 과업, 5가지 보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과업, 담보대출 관련 과업 등을 통해 실험실에서의 재무결정 행동을 측정하였다. 현장에서의 행동으로는 저축 행동, 위험자산 투자, 부동산 소유, 저축성보험 가입, 건강보험 가입, 자영업자 여부 등 6가지 행동을 위험태도를 나타내는 척도로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자가보고를 제외한 4개의 위험태도 측정치 간에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²²⁾ 다음으로 대부분의 위험태도 측정치는 실험실에서의 재무결정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배분과 담보대출 행동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위험태도 측정치가 설명력을 가졌으나, 보험 관련 행동은 짝으로 구성된 복권 선택으로 측정한 위험태도만이 설명력을 보였다.

22) 이 측정치들은 선택한 결과에 따라 보수가 결정되므로 유인이 제공된 위험태도 측정치(Incentivized measure of risk attitude)라고 부르기도 함

나. 위험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Dohmen et al.(2011)은 2004년 SOEP에서 추출한 22,000여 명의 위험감수 정도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성, 연령, 키, 부모의 교육 수준 등이 위험감수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남성이 여성보다 위험을 더 감수하고, 연령이 적을수록, 키가 클수록, 아버지가 독일에서 고등학교 졸업 증명에 해당하는 Abitur를 마친 경우 위험을 더 많이 감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부유한 사람일수록 위험을 더 감수하고, 배우자가 사망했거나, 건강상태가 나쁘거나, 실직한 경우, 자녀 수가 많을수록 위험을 덜 감수하는 것으로,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위험을 더 감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ung and Hanna(1996)는 미국 Survey of consumer finance 자료를 사용하여 가계의 위험 감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는데, 소득, 자산, 예상 은퇴시기까지 남은 기간, 교육 수준, 인종, 자영업 여부, 혼인상태 등이 위험 감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위험태도가 의사결정에 미치는 요인

60~70년대 이론 논문들은 위험기피도, 상속 동기, 소득의 원천, 보험료 또는 타 자산들의 수익성이 보험 수요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였다(Hwang 2024). Mossin(1968)은 주어진 위험하에서 보험보장을 선택하는 합리적 행동을 분석하였는데, 개인의 위험회피도가 감소하면, 자신의 부에 더 많은 위험을 취한다는 결과를 보였다. 다시 말해 그의 모형은 부의 효과(Wealth effect)가 보험가입 성향에 미치는 영향은 부(-)일 것으로 예측했다.

Eling et al.(2021)은 위험태도와 보험가입 간의 관계를 생명보험과 장기요양보험(Long-term care insurance)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이들은 SHARE(Survey of Health, Ageing and Retirement in Europe)의 14개국, 50세 이상 성인 자료를 분석하였는데, 분석 결과 재무위험 감수 용의도가 높을수록 보험에 가입할 확률이 높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종신보험이 정기보험이나 장기요양보험보다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고전적인 기대효용가설이 예측하는 방향과는 반대의 결과인데, 저자들은 대다수 사람들이 생명보험이나 장기요양보험의 위험전가 기제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오는 현상일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2. 조사결과: 위험태도 및 위험행동

가. 위험에 대한 태도

위험에 대한 태도에 관한 설문으로 우선 응답자 본인의 위험감수 성향에 대해서 질의하였고, 6점 척도 기준으로 위험감수 성향을 구분하였다. 1점에서 6점으로 점수가 높아질수록 위험에 대한 감수도가 높아지는 것(위험회피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가정해 응답받았다. 응답자 전체의 6점 척도 기준의 평균 점수는 3.07이다. 연령별로는 50대의 위험감수 성향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30대의 위험감수 성향이 가장 낮았다. 60대의 위험감수 성향은 50대와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았다. 연령대별 위험감수 성향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부록 표 II-3〉 위험에 대한 감수 성향

(단위: %, 명)

구분	1	2	3	4	5	6	평균점수	응답자 수	
	-----> 위험 감수								
연령대	20대 이하	8.1	29.1	28.0	24.1	9.4	1.3	3.02	1,065
	30대	8.9	32.9	25.9	23.2	7.6	1.6	2.92	1,032
	40대	6.0	30.2	25.3	28.1	9.4	1.0	3.08	1,251
	50대	6.3	25.6	25.4	31.2	10.2	1.3	3.17	1,356
	60대	7.6	25.2	26.2	28.8	9.8	2.3	3.15	996
전체	7.3	28.5	26.1	27.3	9.3	1.5	3.07	5,7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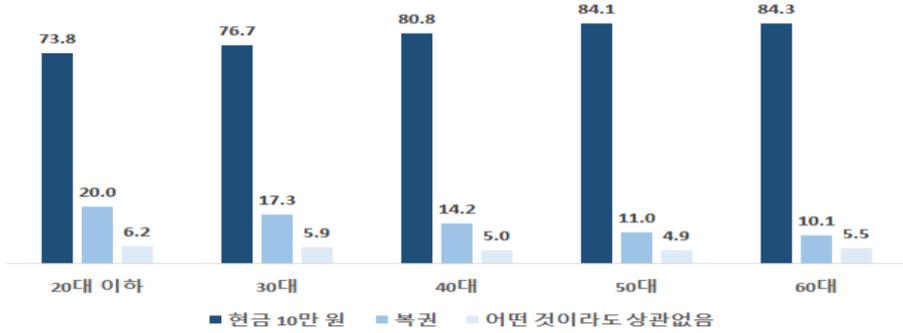
주: 1) 1(어떠한 위험도 회피함)에서 6(어떠한 위험도 감수함)으로 성향점수가 상승할수록 어떠한 위험도 감수함(회피함) 성향이 높아짐(낮아짐)을 의미하는 6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함

2) 평균차이 검정 F-값: 8.73***

현금 혹은 복권 선택 성향으로 응답자의 위험회피 성향을 조사하였는데, 응답자의 84.1%가 50%의 확률로 15만 원 그리고 50%의 확률로 5만 원을 지급하는 복권보다 현금 10만 원을 선호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어떤 것이라도 상관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5% 미만이었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의 복권 선택 비율이 가장 높았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현금의 선택 비율이 복권 선택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상 현금 혹은 복권선택 성향으로 응답자의 위험회피 성향을 확인한 결과, 연령이 높을수록 위험회피 성향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록 그림 II-1〉 연령대별 현금 혹은 복권 선택 성향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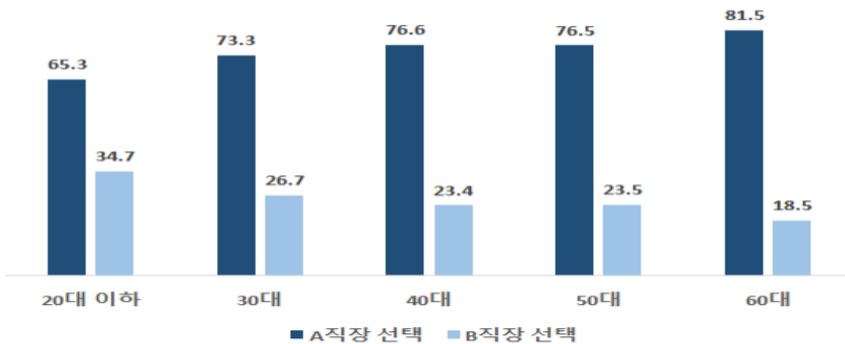


주: 구체적인 질문은 다음과 같음. 다음 중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① 현금 10만 원 ② 복권(50%의 확률로 15만 원, 50%의 확률로 5만 원을 주는 복권) ③ 어떤 것이라도 상관없음

응답자의 위험회피 성향을 확인하는 다른 방식으로서 직장 선택 성향을 조사하였다. 여기서 두 직장의 선택 성향을 설문하였는데, A직장은 현재 받고 있는 소득수준을 계속 보장하고, B직장은 50% 확률로 소득이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늘 수 있지만, 50% 확률로 현재 소득의 2/3수준으로 소득이 줄어드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74.7%가 A직장을 선택하겠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B직장보다 A직장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아졌다.

〈부록 그림 II-2〉 연령대별 직장선택 성향

(단위: %)



주: 구체적인 질문은 다음과 같다. 가족 중 당신만 유일하게 돈을 벌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두 직장 중 하나로 옮겨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느 직장을 선택하시겠습니까? A직장은 현재 받고 있는 소득수준을 계속 보장하며, B직장은 50% 확률로 소득이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늘 수 있지만, 50% 확률로 현재 소득의 2/3수준으로 소득이 줄어드는 것으로 가정함

다음으로 위험회피도를 가늠해 보기 위해, 이직상황을 가정한 질문을 하였다. 응답자가 외
 별이이고, 부득이한 사유로 두 직장 중 하나로 옮겨야 하는 상황에서 어느 직장을 선택하
 는 3문항을 통해 회피도를 측정하였고, 각 문항의 답변을 이용하여 위험회피도 지수를 계
 산하였다. 등 지수는 1에서 4의 값을 가지며 숫자가 커질수록 위험회피도는 낮아진다.²³⁾

연령대별 위험감수 성향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는데, 60대의 위험회피도가 가장 높았
 으며, 20대의 위험회피도가 가장 낮았다.

〈부록 표 II-4〉 위험회피 성향

(단위: %, 명)

구분	1	2	3	4	평균점수	응답자 수	
	←----- 위험회피 ----->						
연령대	20대 이하	38.8	26.2	25.5	9.6	2.06	1,065
	30대	49.3	23.8	17.8	9.0	1.87	1,032
	40대	57.7	18.8	16.0	7.5	1.73	1,251
	50대	58.0	19.3	16.5	6.3	1.71	1,356
	60대	65.6	15.8	11.6	7.1	1.60	996
전체	54.1	20.7	17.4	7.8	1.79	5,700	

주: 1) 3문항의 이직 답변을 이용하여 1부터 4까지의 값을 갖는 변수를 생성하였는데, 1에서 4로 갈수록 위험회피도
 가 낮아짐

2) 평균차이 검정 F-값: 33.76***

나. 위험성향 관련 행동

다음으로 위험행동 성향을 파악하기 위해 우선 응답자의 흡연 성향을 조사하였다. 전체
 응답자의 20.0%는 현재 흡연자라고 응답했으며, 22.0%는 과거에 흡연자였으나, 현재 담

23) A7. A직장은 현재 받고 있는 소득수준을 계속 보장합니다. B직장은 50% 확률로 소득이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늘 수 있지만, 50% 확률로 현재 소득의 2/3 수준으로 소득이 줄어 들 수 있습니다. [1개 선택]

① A직장 선택 ② B직장 선택

A7-1. (A7=1) A직장은 현재 받고 있는 소득수준을 계속 보장합니다. B직장은 50% 확률로 소득이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늘 수 있지만, 50% 확률로 현재 소득의 4/5 수준으로 소득이 줄어 들 수 있습니다. [1개 선택]

① A직장 선택 ② B직장 선택

A7-2. (A7=2) A직장은 현재 받고 있는 소득수준을 계속 보장합니다. B직장은 50% 확률로 소득이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늘 수 있지만, 50% 확률로 현재 소득의 1/2 수준으로 소득이 줄어 들 수 있습니다. [1개 선택]

① A직장 선택 ② B직장 선택

배를 끊었다고 응답했고, 58.0%는 현재까지 담배를 피운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60대에서 20대 이하로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담배를 피운적이 없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록 표 II-5〉 흡연 성향

(단위: %, 명)

구분		나는 현재 흡연자이다	나는 과거에 흡연자였으나, 담배를 끊었다	나는 담배를 피운적이 없다	응답자 수
연령대	20대 이하	17.7	13.2	69.1	1,065
	30대	20.1	19.4	60.6	1,032
	40대	22.9	21.8	55.2	1,251
	50대	22.2	24.4	53.4	1,356
	60대	15.9	31.1	53.0	996
전체		20.0	22.0	58.0	5,700

주: 구체적인 질문은 다음과 같음. 흡연 상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본인의 상황에 가장 가까운 문장을 선택해 주십시오

위험행동 성향으로 주식투자 경험도 조사하였다. 전체 응답자의 58.4%는 현재 주식에 투자하고 있으며, 20.4%는 과거에 주식에 투자한 적이 있지만 현재 더 이상 투자하지 않은 것으로 응답해 주식투자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그렇지 않은 응답자(21.2%)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령별로는 경제활동 종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30대, 40대 및 50대에서 주식투자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록 표 II-6〉 주식투자 경험

(단위: %, 명)

구분		나는 현재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	나는 주식에 투자한 적이 있으나, 더 이상 투자하지 않는다	나는 주식에 투자한 적이 없다	응답자 수
연령대	20대 이하	53.2	21.0	25.7	1,065
	30대	60.9	20.2	19.0	1,032
	40대	62.2	17.9	19.9	1,251
	50대	60.6	20.0	19.4	1,356
	60대	53.8	23.6	22.6	996
전체		58.4	20.4	21.2	5,700

주: 구체적인 질문은 다음과 같음. 주식투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본인의 상황에 가장 가까운 문장을 선택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가상자산 투자 경험을 조사해 응답자의 위험행동 성향을 파악하였다. 전체 응답자의 65.9%가 가상자산에 투자한 적이 없다고 응답해 가상자산 투자 경험도가 전반적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도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대체로 가상자산에 투자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록 표 II-7〉 가상자산 투자 경험

(단위: %, 명)

구분	나는 현재 가상자산에 투자 중이다	나는 가상자산에 투자한 적이 있으나, 더 이상 투자하지 않는다	나는 가상자산에 투자한 적이 없다	응답자 수	
연령대	20대 이하	13.9	24.2	61.9	1,065
	30대	18.7	26.9	54.4	1,032
	40대	19.3	19.3	61.4	1,251
	50대	13.3	15.2	71.5	1,356
	60대	9.0	10.7	80.2	996
전체	15.0	19.1	65.9	5,700	

주: 구체적인 질문은 다음과 같음. 가상자산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다음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문장을 선택해 주십시오

1. 은퇴여부 및 은퇴사유

〈부록 표 III-1〉 연령대별 은퇴 여부

(단위: %, 명)

구분		은퇴하였다	은퇴하지 않았다	응답자 수
연령대	20대 이하	0.0	100.0	355
	30대	1.2	98.8	344
	40대	1.9	98.1	417
	50대	10.6	89.4	452
	60대	51.2	48.8	332
전체		12.1	87.9	1,900

〈부록 표 III-2〉 은퇴사유

(단위: %, 명)

구분	비율
고령/질병 등으로 인한 건강 악화	12.2
가족의 수발 및 돌봄	6.5
다른 무언가를 해보고 싶어서	3.0
하는 일이 싫어지거나 보람을 못 느껴서	4.3
직장 상사 등과의 관계 악화	3.9
연금 등 은퇴 후 생활비의 여유 확보	1.3
정년	33.0
조기/ 명예퇴직 등	18.7
노후 여가생활을 보내기 위해	2.2
가족의 수발 및 돌봄	6.5
사업 악화 및 일거리 없음	7.0
손자녀 돌봄	0.4
본인의 결혼 및 육아	7.4
사례 수	230

2. 은퇴생활

〈부록 표 III-3〉 은퇴 후 소득수준

(단위: %, 명)

구분	비율
10% 이내	10.4
10% 이상~20% 이내	12.6
20% 이상~40% 이내	21.7
40% 이상~60% 이내	27.8
60% 이상~80% 이내	17.8
80% 이상	9.6
평균	40.2
응답자 수	230

- 주: 1) 은퇴 전 월소득과 비교된 은퇴 후 소득수준이며, 1~99% 범위에서 응답받음
 2) 은퇴 전 월소득은 근로기간 중 평균 월 소득임

〈부록 표 III-4〉 은퇴 후 주된 소득원(다중 응답)

(단위: %, 명)

구분	비율
국민연금	34.3
퇴직연금	20.9
개인연금	20.0
주택연금	1.7
예금·적금·저축성 보험	34.8
주식·채권	12.2
수익증권	3.5
부동산	13.0
정부나 사회단체 보조금	2.6
유산	1.3
배우자의 소득	40.9
자식 및 친척에게 받는 생활비 및 용돈	8.7
근로활동	18.7
기타	7.0
응답자 수	230

- 주: 1) 개인연금은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연금보험 등이 포함됨
 2) 수익증권에는 펀드 등 간접투자가 포함됨

〈표 부록 Ⅲ-5〉 은퇴 후 주된 소득원별 소득 구성비

(단위: %, 명)

구분	비율
국민연금	16.8
퇴직연금	14.4
개인연금	4.2
주택연금	0.7
예금·적금·저축성 보험	10.1
주식·채권	3.3
수익증권	0.4
부동산	5.9
정부나 사회단체 보조금	1.0
유산	0.6
배우자의 소득	28.8
자식 및 친척에게 받는 생활비 및 용돈	2.8
근로활동	8.1
기타	3.1
응답자 수	230

주: 1) 개인연금은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연금보험 등이 포함됨
 2) 수익증권에는 펀드 등 간접투자가 포함됨

〈부록 표 Ⅲ-6〉 생활비를 고려할 때 은퇴 후 월 소득수준 정도

(단위: %, 명)

구분	비율
매우 부족하다	14.8
부족하다	33.9
보통이다	40.0
여유 있다	9.6
충분히 여유 있다	1.7
응답자 수	230

부록 IV

연령대별 자산 및 부채 현황

〈부록 표 IV-1〉 총자산 금액

(단위: %, 만 원, 명)

구분	1천만 원 이내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상~	3억 원 이상~	5억 원 이상~	10억 원 이상	평균	응답자 수	
		5천만 원 이내	1억 원 이내	3억 원 이내	5억 원 이내					
연령대	20대 이하	25.0	46.8	17.8	8.4	0.9	0.8	0.3	5,124.07	309
	30대	8.0	20.1	21.5	25.7	11.3	10.1	3.3	20,591.17	274
	40대	3.1	10.2	11.3	27.2	15.4	19.9	12.9	41,240.72	361
	50대	3.0	7.7	7.8	22.9	15.2	22.9	20.4	54,874.00	380
	60대	3.9	6.9	8.9	18.4	14.2	22.9	24.8	65,121.66	265
전체	8.2	17.7	13.1	20.8	11.7	15.8	12.6	38,170.12	5,700	

주: 총자산에는 금융자산, 부동산, 자동차, 권리금 형태의 자산, 기타실물자산(회원권, 귀중품 등)이 포함됨

〈부록 표 IV-2〉 총자산의 구성 비율

(단위: %, 명)

구분	금융자산	부동산자산	자동차	권리금 형태의 자산	기타 실물자산	응답자 수	
연령대	20대 이하	74.68	9.99	5.59	2.31	7.43	1,065
	30대	52.57	31.73	9.01	1.80	4.88	1,032
	40대	36.48	51.62	7.33	1.60	2.97	1,251
	50대	35.09	53.61	6.43	1.30	3.57	1,356
	60대	34.79	54.99	5.51	1.48	3.23	996
전체	45.90	41.30	6.78	1.68	4.34	5,900	

주: 총자산을 금융자산, 부동산, 자동차, 권리금 형태의 자산, 기타 실물자산으로 구분해 비율 합계가 100% 되도록 응답받음

〈부록 표 IV-3〉 금융자산 보유 여부

(단위: %, 명)

구분	예적금	개인 연금	저축성 보험	적립식 및 거치식 펀드	주식	유가 증권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아직 타지 않은 깃돈	퇴직 연금	기타 금융 자산	응답자 수	
연령대	20대 이하	94.6	27.0	26.7	15.3	55.6	5.4	14.7	25.0	24.6	1,065
	30대	95.9	46.9	39.6	20.6	62.5	6.2	16.3	50.9	29.1	1,032
	40대	94.0	52.5	44.6	24.7	63.3	5.0	12.5	51.2	27.9	1,251
	50대	94.2	54.9	45.6	20.9	60.2	4.7	13.9	49.9	27.1	1,356
	60대	93.8	51.1	39.4	19.0	53.8	7.8	13.0	33.8	26.2	996
전체	94.5	47.1	39.7	20.3	59.3	5.7	14.0	42.9	27.0	5,700	

주: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을 모두 선택하여 응답받음

〈부록 표 IV-4〉 금융자산 구성

(단위: %, 명)

구분	예적금	개인 연금	저축성 보험	적립식 및 거치식 펀드	주식	유가 증권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아직 타지 않은 깃돈	퇴직 연금	기타 금융 자산	응답자 수	
연령대	20대 이하	65.7	4.0	4.7	1.9	13.1	0.9	1.9	3.5	4.2	1,053
	30대	54.9	7.2	6.5	2.5	14.1	0.6	2.1	8.0	4.0	1,022
	40대	48.3	8.7	7.3	2.8	15.6	0.6	1.8	11.1	3.8	1,239
	50대	46.5	10.8	7.9	2.6	14.5	0.4	2.2	11.3	3.9	1,339
	60대	48.0	12.1	6.5	2.9	14.6	0.9	2.6	8.4	4.2	984
전체	52.3	8.6	6.7	2.5	14.4	0.7	2.1	8.71	4.0	5,700	

주: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의 비율 합계가 100%가 되도록 응답받음

〈부록 표 IV-5〉 총부채 금액

(단위: %, 만 원, 명)

구분	0원	1원~ 1천만 원 이내	1천만 원 이상~5 천만 원 이내	5천만 원 이상~1억 원 이내	1억 원 이상~3억 원 이내	3억 원 이상	평균	응답자 수
	연령대							
20대 이하	62.5	20.0	8.9	4.4	3.8	0.4	1,157.97	1,065
30대	39.0	12.4	17.1	9.5	16.8	5.3	5,905.40	1,032
40대	36.0	6.1	16.3	10.5	23.5	7.7	8,012.73	1,251
50대	36.7	7.1	17.9	12.4	19.5	6.3	7,063.09	1,356
60대	48.0	7.5	14.8	11.4	13.4	4.9	5,482.70	996
전체	43.8	10.3	15.2	9.8	15.9	5.1	5,682.43	5,900

주: 부채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담보대출, 신용대출, 신용카드 관련 대출(현금서비스, 카드론, 대환대출), 외상 및 할부구입에 따른 미결제 잔액, 개인, 직장 등으로부터 빌린 돈이나 갚 돈을 난 후 낼 돈이 포함됨